

濟州社會研究의 展開와 課題*

申 幸 澈**

1. 論題의 性格

제주사회의 연구경향을 보면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사회학·인류학 부채의 상황 속에서 민속지적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독점 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이 때 泉靖一의 「濟州島」는 돋보이는 저술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제주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연구회가 창립되고, 제주대학에 사회학 관련학과가 설치되면서 사회학 전공자들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최재석의 「濟州島의 親族組織」은 돋보이는 업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논쟁의 소재가 되었다. 조혜정의 박사 학위논문 「An Ethnographic Study of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는 또 하나의 인류학적 연구로 손꼽을 만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제주대학 사회학과에 인류학, 사회학 전공 교수들이 부임하면서 가족·친족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연구의 관심 주제영역도 확대 다양화되면서 제주사회의 연구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의 연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종 조사보고서나 제주도물 다루는 출판물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사회', '가족' 등 사회학 혹은 인류학적 주제가 포함되고 있어서 제주사회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의 성격상 인류학이나 사회학 전공자의 글들을 연대기적으로, 몇개의 주제영역으로 묶어서 개관하려 한다. 다만 논의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전공자의 글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글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이어지는 2절(제주사회 연구의 태동기)에서는 1960년대까지의 연구를 개관하고자 하는데 그 실적이 미미한 관계로 인류학이나 사회학적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글들도 일별해 보려 한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연구물들의 내용을 검토·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평면적으로 연구물을 소개·서술하는데 있다.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적 논의는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집적되었을때 이루어지는

〈편집자 주〉

* 이 글은 金榮敦(외) 제주신문창간 42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濟州島研究會 제3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임 "해방후 제주연구개관(III): 사회과학분야" (『耽羅文化』 제4호, 1985)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인 II. '사회·인류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당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그 뒤 새로 발표된 연구물들을 포함하여 쓴 것이다.

**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것이 좋은 것으로 본다. 자료의 탐색이 미진하여 본의 아니게 누락되고 있는 글들은 다음 기회에 추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사자의 양해를 기대한다.

2. 제주사회 연구의 태동

해방 이전의 제주사회에 대한 학문적관심은 대체로 민속학 혹은 인류학의 영역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관련으로는 島居龍藏의 “民族學上으로 본 濟州島(耽羅)” (1924)가 그 최초의 것이고, 1930년대에는 泉靖一의 “제주도 사회인류학적 연구”의 3편의 글”이 눈에 뜨인다. 泉靖一의 글은 그가 대학생 신분으로 1936-37두 해에 걸친 현지조사를 하고 대학(경성제국대학)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제주 촌락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 현지 조사지로는 북제주군 조천면의 교래리, 대흘리, 북촌리, 와산리, 신촌리와 제주읍의 화북리 등 6개 부락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최재석, 1975).

1940년대에 이르면 경성제국대학 부속생약연구소의 제주시험장(1943. 4월 개장)에 부임한 인연으로 石田明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가 돋보인다. 「濟州島의 生命調査書〈濟州島 人口論〉」(1949)과 「濟州島隨筆〈濟州島의 自然과 人文〉」(1968)이 그것이다. 전자는 1943-4 두 해에 걸쳐 도내 일원 16개 마을을 “생물학적으로 조사하여 그 부락의 생명의 양을 측정하려는 동기”에서 연구된 것이나(석주명, 1949: 9) 그 부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人口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며, 후자는 원래 1949년 탈고한 것인데 저자의 회갑을 맞아 그의 여동생 석주선의 발문을 붙여 석주명의 濟州島叢書 ④로 발간중에서 제주도에 관한 것이라면 적당한 제목을 붙들어서 수시로 카아드에 기록하여 쌓아두었다가” 그 일부를 정리한 것(석주명, 1968: 서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1940년대의 제주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다. 따라서 그 학문성은 결여되어 있으나 책의 내용중 특히 ‘인문편’의 ‘사회’ 및 ‘인구·특수부락’의 항은 사회학·인류학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 보면 그 초기에 泉靖一은 “濟州島의 村落組織” (1) (51)과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1951)을 발표하였다. 전자는 그의 학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엮어 발표한 것이고(최재석, 1975: 165) 후자는 泉 등 4인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해외 제주교포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1950년대에 학술활동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1959년 7월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2일간에 걸쳐 해방후 최초로 전국 학계를 거의 총망라한 대규모의 ‘제주도 종합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²⁾ 당시 그 조사의 한 부문으로서 ‘사회학’반에 의한 조사활동은 그 전문성에 있어서 제주도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할 것이다. 이 사회학적 조사는 북제주군 애월면의 K리에서 현지 민박하면서 질문지에 의한 면접으로 실시되었는데, 한국에 있어서 농촌 마을에

1) 秋葉隆, “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1932)
小浜基次·仇藤正良, “濟州島·對馬島 및 老岐에 있어서의 島原住民의 本質 人類學的研究”(1935-1936)
간田一二, “濟州島 海女の 地理學的 연구”(1934)
(간田의 글은 제주 여성(해녀)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들었다.)
2) 이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한상복의 글 (1984) 및 졸고(1985: 275) 참조 할것.

대한 조사로서는 초기에 해당한다.³⁾ 그 외에 1950년대의 연구물로는 제주 여성에 관련하여 최학선의 글 “제주도 민요에 나타난 해녀의 생애” (1958)가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보면 泉靖一의 「濟州島」 (1966)가 제주사회에 관한 가장 돋보이는 연구업적이다. ⁴⁾ 이 저술의 1부는 1938년의 대학 졸업논문, 2부는 1951년 「日本民族學研究」에 각각 이미 발표된 것을 개필하여 실은 것이나 제3부 ‘제주도에 있어서의 30년’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이 3부는 “1965년 10월 단체관광단의 일원으로 내한하여 4일간 교래리에 들르기로 하였지만 주로 화북리와 대흘리를 조사”한 것(최재석, 1975: 166)으로 제주사회 30년간의 변동을 경제와 가족·친족의 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960년대 한국인의 제주농촌에 관한 연구 발표로는 노창섭·강우철·김종서의 “제주도 개발농촌지역의 연구 — 신흥리 부락의 사회, 경제 및 교육적 분석과 평가 —” (1966)가 있는데 이는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의 시범부락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Case Study이다. 그 연구자들 중 노창섭은 사회학자였다는 점과 따라서 그 연구방법이나 서술이 사회학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종래의 여러 연구와는 달리 제주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여성분야의 연구들 특히 해녀에 관한 글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당시 제주도가 발행하던 「제주도」(제주도 당국이 발행)를 통하여 이차숙의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지위와 축적관행” (1968)의 3편이 발표된 바 있고 민경희의 “한국 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1964)가 「梨大史苑」에 발표된 바 있으며 석사논문(성균관대)으로 고상룡의 “한국의 입어관행권에 대한 연구” (1967)도 있다.⁵⁾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까지의 제주사회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연구의 부제상황 속에서 민족지적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 뒤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에 공헌하는 자료들이 되고 있다.

3. 사회학·인류학적 연구의 전개 : 1970년대의 제주사회 연구

1970년대에 이르면 제주도에 관한 연구 특히 사회학적 연구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 중요한 배경은 제주대학에 사회학 유사학과⁶⁾가 설치되고 그에 따라 사회학 전공자들이 제주대학에 부임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가오는 1980년대 사회학의 전문적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예고해 주는 것이 된다. 한편 제주도 연구회가 창립(1978. 2월)되었다는 것도 제주사회 연구 활성화에 자극제가 되었다.

1970년대 제주사회 연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연구 주제영역은 가족·친족 분야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최재석은 사회학자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연구업적들은 1979년 「濟州島親族組織」으로 묶어 출판하였는데 그 내용은 1970년대 후반 5년동안에 걸쳐 실시된 남제주군 성산읍 S리의 현지조사 자료를

3) 한국에 있어서 농촌마을에 대한 최초의 현지조사는 1958년 한국사회과학 연구소의 자금지원으로 이만갑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한다.(이만갑, 1972: 518)

4) 宮原道(1967: 194)은 그 시명에서의 이 책이 제주도의 “기초적 문헌으로서, 또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의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宮原道一, 1967: 194)

5) 제주도 해녀에 관한 주요 논적들은 김두희·김영돈(1982)의 주4) 및 줄고(1985: 357 및 290-291) 논저 목록 ‘如性’부분을 참조할 것.

6) 1978년 3월 지역사회개발학과의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현재의 사회학과는 그 후신이다.

중심으로 하여 1975~1978사이에 이미 발표된 11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⁷⁾ 그 연구작업의 계기가 된 것은 泉靖一의 「濟州島」(1966)에 대한 강한 의의심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최재석은 “書評: 濟州島 泉靖一著”(1975)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인 佐藤信行도 두 편의 논문 즉, “濟州島の 家族”(1973)과 “島の 사돈”(1976)을 발표하였다. (후자의 글은 최길성(번역), 「한국의 사회와 종교」(1982)에 재수록 되었음). 현용준도 1971년 일본의 동아시아문화센터 주최의 심포지움에서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에 언급한 연구들 외에 가족관계 연구들은 사회학이나 인류학 이외의 학문영역 특히 가정학 분야에서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⁸⁾

가족·친족 분야에 버금하여 들 수 있는 제주사회 연구 영역으로는 마을(부락·촌락)에 대한 연구들이다. 조혜정의 박사학위논문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1979) 및 이 학위논문을 근간으로 한 “Neither Dominance: A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1979)가 발표되었고 그에 앞서 현용준의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1)”(1970)가 발표되었다. 조혜정의 글은 제주도의 해촌마을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최초의 인류학 박사학위논문이라는 점에 그 또 다른 의미가 있고, 현용준의 글은 민족지적 글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민족지적 현지조사(특히 제주대학교 국문학과와 조사할)의 출발점이 되었다.

가족이나 마을 관계의 다른 글로는 이광규의 ‘사회’(1977), 현용준의 ‘사회’(1973)와 김영돈의 ‘정의고을’(1973) 등이 있고 제주대학 민속박물관에서 「濟州學報」19집의 별책으로 펴낸 「해촌생활 조사보고서」(1978)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게 되면 제주도민 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박재활의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1977)는 사회학 영역에서 접근한 최초의 것이다. 도민 의식에 대한 조사로서 최초의 대규모 작업은 제주대학 통일안보 연구소가 제주도 당국의 후원으로 실시된, 조문부의 4인의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1978)가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탐라 정신을 구명해보려는 시도들⁹⁾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주제영역외에 문화와 해외 교포에 대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문화에 관한 글로는 현용준의 “제주도의 기층문화”가 있고, 해외 교포에 대한 글로는 제주신문의 후원하에 이루어진 신행철·고성준의 “재일동포와 통일문제”(1979)가 있는데 이것은 1950년대의 泉靖一의 “동경에 있어서의 제주도인” 이후 제일 제주교포에 대한 최초의 접근인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심화·확충과 다양화: 1980년대의 제주사회 연구

1980년에 들어서면서 제주사회의 연구 열기는 한층 가열된다. 그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우선 연구의

7)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줄고(1985: 279-280) 참조. 이 일련의 연구는 그 뒤 1980년대 초반 논쟁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러 한다.

8) 줄고(1985) 참고 할 것.

9) 1979년 제주도 당국의 후원으로 제주대학 탐라연구소가 7명의 제주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모아 ‘탐라정신탐구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그 내용은 다시 종합되어 현행호의 7인의 명의로 제주대학 논문집 II집 (1980)에 “탐라정신탐구”라는 제목으로 요약 발표되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70년대 말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설립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주도 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1981년 탐라문화연구소(제주대학교 부설)가 법정연구기관으로 발족되면서 그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었고, 1984년에는 사회발전연구소(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학문 연구조직의 등장이 제주사회연구를 양적·질적으로 확충·심화하는 환경요인이 되어 제주사회 연구는 그 발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의 제주사회 연구는 우선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관련한 학문적 논쟁에서부터 그 막을 올리게 된다. 그 논쟁의 내력은 이러하다.

1979년 2학기 객원교수로 제주대학에 부임한 사회인류학자 김한구는 그 다음해에 최재석의 저서 「濟州島의 親族組織」을 비판하는 서평논문 “崔在錫著, 濟州島의 親族組織” (1980)을 발표하였다.

이에 최재석은 그 해 가을 제주연구회의 한 모임에서 “濟州島 親族構造의 問題點”을 발표하였고 이어 본격적으로 김한구의 논평을 반박하는 “社會科學의 基礎素養: 「濟州島의 親族組織」에 대한 김한구氏의 書評의 경우”(1980)를 발표하였는데, 김한구는 다시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 인류학적 고찰” (198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의 마을(남제주군 성산면 S리)의 부락구조, 가족제도 등을 다루면서 최재석의 입장을 논박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비판 부제의 당사자들 외에도 이 논쟁에 관련하여 언급한 사람들로선 전경수와 이광규가 있다. 전경수는 「진단학보」 5호(1983. 7)에 최재석의 「濟州島의 親族組織」에 대한 서평을 실었고 같은 해 이광규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의 ‘제2회 탐라문화 학술회의’에서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이란 주제에 따라 “사회학적 측면”을 발표하였다. 전경수는 예의 저서에 대하여 이른 및 방법론, 자료, 기술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광규는 최·김 당사자의 논쟁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쟁의 시기에 가족·친족에 관한 글들이 몇 편 발표되는데, 이창기의 “제주도의 가족관계” (1983)와 “제주도 가구의 크기” (1987), 그리고 앞에 언급한 이광규의 “사회학적 측면”등이 그것이다. 이들중 이광규의 글은 제주사회 연구의 ‘논쟁’(최재석·김한구 논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아니라 조혜정(1982)의 남녀 역할 분담의 이분법적 사회원리의 설명을 비판하고 있는데(이광규, 1983: 75) 이점은 앞으로 제주사회 연구의 일환으로 토론해 볼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1980년대의 연구물 중 농촌마을을 연구단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다른 주제영역에 비해 그 양이 가장 많고 그 주제도 다양하다. 이제 70년대의 가족·친족에 집중되던 관심이 농촌마을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인류학 연구 특성의 반영인 동시에 농촌마을 단위에서 다루어지는 연구관심들이 정치, 경제, 법률, 사회계층, 사회조직 등 다양화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 연구의 예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신행철은 마을의 정치체제(권력)에 관련하여 1981년 “한국 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단위 부락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후 계속 세편의 논문(1983; 1985 및 1987)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논문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주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1987)를 썼다. 이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축역되어 「Korean Social Journal」 Vol. 14에 실리고 있다. 사회조직에 관련해서는 참석준의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1985; 1986)가 발표된 바 있고 그 연구는 계속 확충·심화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범사회학의 측면에서는 서경림의 “어촌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법규범” (1985)이 발표되었다. 농촌마을에 관련 한 석사(인류학) 논문들도 있는데 김준희(1983)와 오석민

(1986)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감귤재배 마을에 접근한 사례연구들로서 전자는 경제적 변화에 후자는 제충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한편의 석사논문은 사회학 전공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고승환의 “농업의 상업화가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변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 열대특용(환금작물)” 농촌을 다루고 있는 경향에서 우리는 제주농촌의 작물재배 체계의 전환을 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농촌의 변화 현상에 연구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듯하다. 지역사회 혹은 지역개발을 주제로하는 글도 발표되는데, 신행철·김태보의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1980), 신행철의 ‘농촌개발 엘리트’에 관한 글(1983) 등이 그것이다.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는 주로 인류학적 접근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데 김한구의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고찰”(1981)과 유철인의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1984)의 두 편, 이기욱의 “도서민: 마라도”(1984)가 있다. 이기욱은 그 이전에 석사논문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1984)를 쓴 바 있다. 의식에 관한 글로는 신행철의 “제주도민의 사회·문화 의식상의 전통성”(1980)과 김진영과 공동집필한 “제주도인의 의식구조”(1985)가 있다.

여성을 주제로 하는 글들은 해녀를 소재로 하여 상당수 발표되는데 인류학 영역의 글로 조혜정의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 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1982)와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 구조의 변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1985)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고 한정우의 석사논문 “도서 어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일 연구: 추자도 담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1987)가 있다. 해외 제주도민에 대한 글로는 신행철의 “재일제주동포: 그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구조”가 있는 정도이다.

1980년대의 연구경향으로 특기할 사항은 종래 도외시되었던 사회학적 주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도시, 사회심리, 사회사, 사회변동, 관광, 인구를 주제로 하는 글들이 그것이다. 이런 경향은 전적으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사회학 교수들이 확충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도시 영역에서 보면 정대연의 “제주시의 생태학적 구조 분석”(1984)이 있고 조성윤의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1986)를 꼽을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황석규의 “도시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1986)가 있다. 사회심리학적 주제의 글은 정대연의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83)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사의 영역에서는 신용하의 “새로운 향토사의 연구 대상과 방법”(1986)과 조성윤이 1986에 발표한 두 편의 글,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난”이 있는데 특히 신용하의 글은 사회사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변동을 다룬 글은 이상철의 “거주사회 변동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1987)가 있다.

관광에 관련한 글로는 전경수의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재언: 관광인류학적 입장”(1985)과 신행철의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Tourism Development in Cheju Island”(1987)가 있는데 전자는 제주도 연구회 제1차 학술회의에서, 후자는 하와이대학 한국학 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에서 각각 발표된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회현실에서 보면 관광현상은 제주사회 연구에 좋은 주제가 된다고 하겠다.

제주도 인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이창기에 의해 이루어졌다.¹⁰⁾ 이창기는 1982년에 “제주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제주도의 인구성장”, 두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고 1985년 “제주도의 인구이동 : 1965-1980”을 제주도연구회 제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5. 제주사회 연구의 전망과 과제

193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제주사회의 연구는 그 후 50여년이 지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는 것 같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가족·친족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연구의 관심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연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 연구의 일반적인 추세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종래 거의 가족·친족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도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제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의식, 기층문화, 사회사, 사회변동, 인구, 해외교포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련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둘째, 민족지적인 사실발견적 연구에서 인류학·사회학적인 이론적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제주사회의 이론 구성이 그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셋째, 제주연구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가족·친족의 연구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제주 기층문화와 사회구조에 대한 견해의 차이, 제주사회 연구 영역간의 부조화의 문제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보다 진지한 학문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와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이론적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문간의 협동연구를 적절히 조직화하고 장려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사회적 사실은 학문적 연구를 앞질러 움직여 나간다. 그런데 학문은 그 사회적 사실에 유관 적합할 때에만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론은 회색이요 늘 푸른 것은' 생동하는 삶의 세계이다. 근래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회현실의 인식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사회 연구의 경우도 다름이 없다.

우선 제주사회의 현상 인식을 개관적으로 하고 그에 유관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그 연구 성과는 제주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사회 연구의 과제를 선택적으로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연구의 방법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사회가 나타내는 현상이 '제주적'인 것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사회의 도시성이나 주변성의 문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사회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예측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사회 연구의 성과가 제주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문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 규범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제주사회의 전개에 관광현상은

10) 인구에 대한 사회학 이외의 학문영역에서 접근한 예들은 주로 지리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강상배의 글들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졸고(1985) 논저 목록의 '인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 한때의 글로는 송성대의 글("제주시 인구성장에 관한 고찰" 제주대 논문집 20집, 1985)이 있다.

매우 깊고도 중요한 관련을 맺게 될 것 같다. 제주사회가 관광사회로서의 성격이 농후할진대 앞으로 관광현상에 대한 사회학적·인류학적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

세째,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사회 구성체의 논의나 그 사회체제적 논의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제주사회의 농업적 생산의 성격 변화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째, 근대 여성사회학이 대두되어 그 논의가 활발하거나 제주 여성에 대한 사회학적·인류학적 접근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 종래 제주 해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온 것은 이 분야 연구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며, 그 연구는 곧 제주사회의 독특한 면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주사회 자체가 지닌 용력을 진단하고 조직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연구가 제주민을 위한 삶의 세계에게 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이상의 과제들은 선택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제주사회 연구의 다른 영역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부언해 둔다.

관련 문헌목록

- 고승한, 1986, “농업의 상업화가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변동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열대특용작물재배농가의 사례연구”, 부산대 석사논문(사회학).
- 고상룡, 1967, 「한국의 입어관행권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 김두희, 김영돈, 1982, “해녀입어분류조사연구해녀: 입어관행의 실태와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집」 14집(사회과학편), 제주대학.
- 김석준, 1985,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제집단참여와 사회적 유대”,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제주도연구회 제1차학술대회 발표요지), 1986; 제대논문집 22집(사회과학편).
- 김영돈, 1973, 「정의고을」: 민속자료보호구역조사보고서, 제55호, 문혜재관리국.
- 김준희, 1983, 「감귤재배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변화: 제주도 위미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논문(인류학과).
- 김한구, 1980, “최재석지, 제주도의 친족조직”, 「한국학보」 19집, 일지사.
- _____,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고찰”, 「현상과 인식」 5권2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노창섭·강우철·김중서, 1966, “제주도 개발농촌지역의 연구 — 신희리부락의 사회, 경제 및 교육적 분석과 평가”, 이화 80주년기념논문집(사회과학편).
- 민경희, 1964, “한국해녀의 역사 및 생활실태”, 「이대사원」 5집.
- 박재환, 1977,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집」 9집, 제주대학교. 서경립, 1985, “어촌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법구법”, 「사회발전연구」창간호,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 석주명, 1949,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제주도인구론」, 서울신문사출판부.
- 석주명, 1968, 「제주도수필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보진재.
- 신용하, 1986, “새로운 향토사의 연구대상과 방법”,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신행철·고성준, 1979, 「재일동포와 통일문제」, 제주신문사 통일문제연구소.
- 신행철·김태보, 1980,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 「새마을운동 10주년기념논문집」, 제주도.
- 신행철, 1980, “제주도민의 사회·문화의식상의 전통성”, 「논문집」 11집, 제주대을 중심으로”, 「논문집」 12집, 제주대학교.
- _____, 1982, “재일 제주교포: 그 소수 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구조”,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2, “도민의식으로는 제주개발의 성격과 문제점”, 「제대학보」 23집, 제주대학교.
- _____, 1983, “한국농촌지역사회의 특성과 그 권력구조 유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논문집」 18집, 제주대학교.
- _____, 1983, “한국농촌개발엘리트집단의 구조와 성격: 제주도 행정리 ‘리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역 사회권력구조론적 고찰”, 「논문집」 16집, 제주대학교.
- 신행철·김진영, 1985, “제주인의 의식구조”(조사연구보고서, 프린트판 단행본), 제주대사회발전연구소.
- 신행철, 1985, ‘사회·인류학’ 김영돈의 “해방후 제주연구개관(III): 사회과학분야”, 「탐라문화」 제4호,

탐라문화연구소.

신행철, 1985, “제주농촌마을의 권력구조와 제주도의 하위지역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제주지회 제5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양순필·김순택(외),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남, 1986에 수록)

_____, 1987, “한국농촌마을의 리더쉽구조와 그 사회적 성취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행정리 단위마을의 리더쉽구조와 동원”, 「성곡논총」 제18집.

_____, 신행철, 1987,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the Tourism Development in Cheju Island”, 하와이대학 한국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The Second Conference o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Chejudo and Hawaii’ 발표논문.

오석민, 1986, 「제주도 감귤재배지의 계층구성 및 임노동의 성격」, 서울대 석사논문 (인류학).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_____, 1985, “제주도와 육지부간의 사회접합: 제주사회구조와 문화적 정체성”,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제주지회 제4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양순필·김순택의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남, 1986에 수록).

_____,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호, 탐라문화연구소.

이광규, 1977, “사회”, 문공부문화재관리국(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형설출판사.

_____, 1983, “사회학적 측면”, <특집>: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제3호, 탐라문화연구소.

이기옥, 1984, “도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1집, 제주도연구회.

_____, 1984, 「도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이만갑, 1972, “한국의 사회학”, 동아문화연구소(편), 「한국학」, 현암사.

이상철, 1987,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3.

이차숙, 1968, “우리나라여성의 법적지위와 제주도의 축첩관행”, 「제주도」 38호.

이창기, 1982, “제주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인구보건론집」 2-2.

_____, 1982, “제주도의 인구성장”, 「탐라문화」 창간호, 탐라문화연구소.

_____, 1983, “제주도의 가족관계”, 「한국의 발견」 (제주도편), 뿌리깊은 나무사.

_____, 1985, “제주도의 인구가동: 1965~1980”,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 제주도 연구회 제1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_____, 1987, “제주도 가구의 크기”, 「탐라문화」 6호, 탐라문화연구소.

전경수, 1983, “제주도의 친족조직” (서평), 「진단학보」, 제55호, 진단학회.

_____, 1985,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보전을 위한 제언: 관광인류학적 입장”, 「제주도의 보존과 개발」, 제주신문 40주년기념 심포지움 및 제주도연구회 제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제주도 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에 수록).

정대연, 1983, “준거집단과의 사회적비교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17집.

_____, 1984, “제주시의 생태학적 구조분석”, 「탐라문화」 제3호, 탐라문화연구소.

- 조문부(의), 1978,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제주대 통일안보연구소.
- 조성윤, 1986, “남학당의 활동과 방성칠난”,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_____, 1986, “1898년 제주도민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적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86,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사회학연구」 네째책, 한국사회학연구소.
- 조혜정, 1979,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h. D. Dissertation).
- _____, 1979, “Neither Deminance : A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Korea Journal」 19-6,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_____, 1982, “제주도 해녀사회연구 :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 한상복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 _____, 1985, “근대화에 따른 성역할구조의 변화 : 제주도사례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문화인류학 전국대회 발표논문.
- 제주대 민속박물관, 1978, 「해촌생활조사보고서」, 「제대학보」 19집 별책, 제주대.
- 최재석, 1975, “서평 : 제주도”, 「화인류학」 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_____,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 _____, 1980, “사회과학의 기초소양 : 「제주도친족조직」에 대한 김한구의 서평의 경우”, 「한국학보」 제20집, 일지사.
- 최학선, 1958, “제주도민요에 나타난 해녀의 생태”, 「현대문학」 4권 12호.
- 한상복, 1984, “제주도민요에 나타난 해녀의 생태”, 「현대문학」 4권 12호.
- 한정우, 1987, 「도시 어촌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추자도 답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인류학)
- 황석규, 1985, 「도시내 상층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사회학).
- 현용준, 1970, “제주도 해촌생활의 조사연구(1)”, 「논문집」 2집, 제주대학.
- _____, 1971,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 「The Symposium on Family and Religion in East Asia Countries」 Vol XI No. 1~4. 동아시아 문화센터. (동경 동양문고 부설연구소).
- _____, 1973, “사회”, 「제주도문화제 및 유적종합보고서」, 제주도.
- _____, 1975, “제주도의 기층문화”, 「문화인류학」 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秋葉隆, 1932, “濟州島에 있어서의 蛇鬼信仰”, 「青丘學叢」 7號, 青丘學會.
- 泉靖一, 1938, “濟州島 : 그 社會人類學的 研究”, 京城大學 졸업논문.
- _____, 1951, “濟州島의 村落組織”, 明治大學 「政經論叢」 20.
- _____, 1951, “東京에 있어서의 濟州島人”, 「民族學研究」 16-1.
- _____, 1966, 「濟州島」, 東京大學 出版會.

- 간田一二, 1934, “濟州島海女の 地理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2輯, 古今書院.
- 小浜基次·在藤正良, 1935~1936, “濟州島, 對馬島 및 壹岐에 있어서의 島原住民의 體質人類學的 研究”, 「人類學雜誌」50卷 11號~51卷 7·8號, 東京人類學會.
- 佐藤信行, 1973, “濟州島의 家族”, 中根千枝編, 「韓國의 家族과 祭儀」東京大出版部.
- _____, 1976, “濟州島의 사돈”, 「南島」, 南島史學會. (최길성(譯), 「韓國의 사회와 종교」아세아문화사, 1982에 재수록).
- 島居龍藏, 1924. “民族學上으로 본 濟州島(耽羅)” 「日本周圍民族의 原始宗教」, 岡島院.
- 宮原ト一, 1967, “批評과 紹介: 泉靖一著 「濟州島」”, 「朝鮮學報」44輯, 朝鮮學會.